

# 광주의 밤 미디어아트 수놓는다



이배경 작 '마음의 거울'

## 10월 11~12일 광주천변에서 '미래의 빛'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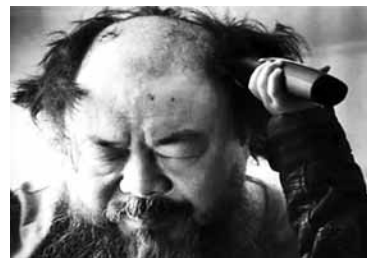
미디어 아트가 올 가을 밤 광주를 수놓는다. 건물 벽면 등에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업혀지고, 천변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이 상영되는 등 도심 전체가 하나의 영화관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게 된다.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아이 웨이웨이 등 국내외의 6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2014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10월 11~12일 열린다.

3회째를 맞는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그동안 행사를 열었던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천변으로 무대를 옮겼다. 특히 '미래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분야 가입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 및 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작가는 중국의 아이 웨이웨이(Ai Weiwei)다. 북경에서 실험예술가들의 리스트 빌리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뮤직 비디오 '명칭이'를 미디어파사드 작품으로 전환해 선보일 예정이다. '명칭이'는 아이 웨이웨이가 지난 2011년 자신의 81일간 수감생활을 소재로 제작한 작품이다.

정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독일작가 디르크 플라이쉬만(Dirk Fleischmann)은 '나이 탄소 배출



아이웨이웨이 작 '명칭이'

### 중국 아이웨이웨이 등 국내외 작가 60여명 참여 광주 도심에 영화관으로

권'을 출품한다. 열대 우림에 토지를 구해 식물을 기르고 자체적인 탄소배출권 체계를 구축한 '나의 열대 우림농장'과 연관된 작업이다. 열대 우림농장의 풍경사진을 모니터, CD, 종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여준다. 열림우림농장의 CD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며 이 수익은 전액 열대우림농장의 운영을 위해 쓰인다. 디르크 플라이쉬만은 확장시절 초콜릿 바 판매를 시작으로 게임 쇼, 가상 부동산 매매 등 크고 작은 사업방식의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영국작가 샘 미치는 성경내용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 '노아의 방주'를 선보인다. 작가가 영국 맨체스터의 북서 영화 아카이브 레지던시에 있

을 때 제작한 것으로 시인 나단 존스의 내레이션과 칼 브라운의 음악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70개의 영상 소스를 바탕으로 3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이다.

국내 작가들도 흥미로운 작업을 선보인다. 신성환은 관람객이 LED 펜으로 그린 그림이 모니터에 영상으로 구현되는 관람객 참여형 작품 '빛으로 세상을 그리다'를 선보인다. 빛과 오브제, 사운드를 이용한 설치작업 'Zone-Gong'도 함께 전시된다.

세계 곳곳에서 전시를 갖고 있는 이배경은 색다른 인터랙티브 작업 '마음의 거울'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물결 영상 속에 자신의 실루엣이 투영되는 신비로운 체험 기회를 갖는다. 물은 담기는 용기에 따라 형태와 색이 변하게 된다.

모나리자, 박연폭포 등 동서양의 명화를 영상으로 재탄생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이남도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그는 LED모니터에 담긴 디지털 회화뿐 아니라 포크레인과 모니터를 이용한 실험적인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정운학 예술감독은 "이번 전시가 광주 작가들에게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국립광주박물관 인문학 강좌·콘서트

내일 건축가 이은영 초청 강연

27일 클래식 변주곡 음악여행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에서 인문학 강좌와 콘서트가 잇따라 열린다.

26일 오후 3시 박물관 대강당에서는 건축가인 이은영 명지대 교수를 초대해 '건축가 이은영, 인문학을 말한다'를 주제로 인문학강좌를 개최한다.

이 교수는 이날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건축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 이 교수는 독일 아헨공과대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한국인 최초로 독일 연방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대 도서관으로 선정된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바



이은영 교수

이마르 시민회관, 켈른 이슬람사원 등이 그의 작품이다.

27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떠나는 클래식 변주곡 음악여행 'Adventure in Variation'을 주제로 토요콘서트가 개최된다.

'문화복덕방 탕글'이 무대를 꾸미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파헬렐의 '캐논' 등 모두 7곡을 '인크레더블' 등 모험 애니메이션에 맞춰 변주곡 형식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이날 오후 3시40분까지 입장하면 된다. 문의 062-570-701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피아노모 정기연주회 '발라드, 스케르초, 랩소디'

27·2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노모(대표 이주영 목포대 교수) 15회 정기연주회가 27일(오후 3시·7시), 28일(오후 3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피아노모는 지난 2010년 결성된 전문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단체로 매년 서울 이원아트홀과 광주 금호아트홀에서 테마가 있는 연주회를 열고 있다.

'발라드, 스케르초, 랩소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 쇼팽, 리스트, 포레, 생상스, 라벨, 거슈인 등 다양한 작곡가의 음악을 연주한다. 특히 28일에는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와 '스페인



이주영 교수

랩소디'를 집중적으로 들려준다.

김윤진·김현정·이슬·반수진·최유진·김현정·이주영·김형미·이현주(27일 오후 3시), 이명호·한승희·이영아·나원진·김영선·임리라·조지영·김선아·함지연·김은희(27일 오후 7시), 문수이·이초희·이아름·고라희·장영은·조연화·홍재영·박소연·최지영(28일)씨가 참여했다. 문의 010-8540-52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향, 현악·관악 연주자 오디션

29일 마감·오디션은 10월 17일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이현세)은 지역 출신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을 위한 오디션을 실시한다.

이번 오디션은 관·현악, 피아노, 성악 3개 부문을 대상으로 매년 1개 부문씩 진행되며 올해는 현악과 관악 연주자가 참여할 수 있다.

오디션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광주시립교향악

단 연습실에서 열리며 신청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다.

광주·전남 지역 출신의 대졸 이상 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 곡목은 오케스트라와 연주 가능한 협주곡 전 악장이다. 암보로 연주해야하며 반주자를 동행해야한다.

오디션 합격자는 2015년 1월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에서 협연할 기회를 갖는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오늘의 가사문학' 가을호 나왔다

담양에서 발간되는 한국가사문학 전문 계간지 '오늘의 가사문학' 가을호(통권 2호)가 나왔다.

창간호를 통해 가사문학의 태동과 문화적, 역사적 의미, 장르의 특징을 개괄했다면 이번호에서는 가사작가 인물전, 누정기행, 가사 창작대회 수상작 등 가사를 매개로 한 다양한 글을 소개한다.

특집으로 류연석 순천대 명예교수가 '새로 쓰는 가사문학시2'를 주제로 고려말부터 조선 성종까지의 가사문학의 양상을 개괄하고 김신중 전남대 국문과 교수는 '누정기행'에서 그림자를 쉬게 한다는 '식영정'의 문학적 정취를 풀어낸다.



'가사시학'에서는 최현선 전남도립대 교수와 한창훈 전북대 교수가 각각 '가사란 무엇인가' '사행가사의 교육 목적과 내용론'을 주제로 가사의 미학과 교육적 의미를 살펴본다.

문인과 문화 전문가들의 글맛을 느낄 수 있는 '문화산책'에서는 송수권 시인, 문순태 소설가, 이행철 차(茶)학 박사, 조재호 교수의 개성적인 글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가사 창작대회 수상작인 이휘 씨의 '세시록'과 우석여고 교지 편집부(임미진, 조예람, 김슬기)의 '담양별곡'도 수록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